

유.엔. 마주르(Ю.Н. Мазур)의 생애와 한국어의 품사 체계*

칼리나**

〈차 례〉

1. 서론
2.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
3.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
4. 결론

[국문초록]

유리 니콜라예비치 마주르(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 1924~1998)는 러시아 최고의 한국어학자 중의 한 명으로 평가된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극동학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1953년에는 동 연구소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제1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를 거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에 임용된 후 남은 인생을 이 연구소에서 보냈다. 마주르는 한국어와 관련해 서 100편이 넘는 업적을 남겼다.

이 논문의 목적은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을 소개하고 그의 한국어 품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고는 러시아어로 집필된 마주르의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1954),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1960),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2001)을 대상으로 하였다. 러시아인 한국어학자 마주르는 러시아어 문법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단어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품사와 보조어로 나누어 설명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있는 것들은 품사에 포함시키고 후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사, 접속사, 조사, 의존명사 등과 같은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것들은 보조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양상어의 설정, 러시아어의 전치사에 대응되는 후치사의 설정, 조사의 설정 등 러시아어의 문법 개념들을 한국어에 적용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조선어문법의 영향을 받아 관형사를 설정하였다. 미주르는 교착어인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여 모호한 면도 있지만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이해하고 익히기에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미주르, 품사 체계, 보조어, 양상어, 후치사, 조사, 관형사

1. 서론

이 글은 러시아 최고의 한국어학자 중의 한 명인 유리 니콜라예비치 미주르(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1924~1998)의 생애와 연구 업적, 그리고 그의 한국어 품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르는 홀로도비치(A.A. Холодович) 이후 러시아의 한국어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그가 집필한 한국어와 관련된 논저들이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한국어학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뽑히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 문법』은 러시아 대학에서 한국어학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미주르의 문법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미주르를 한국어 학자로 소개하고 그의 문법서를 검토한 논의는 아주 드물다. 홍택규(2004)는 미주르의 『한국어 문법』(2001)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글이다. 최지영(2016), (2016-)은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 개요』(1954)와 미주르의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2001)과 같은 러시아인 한국어학자가 펴낸 2권의 책과 한국인 학자가 펴낸 3권의 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품사 분류와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에 대한 사용 양상을 다룬 연구이다.¹⁾ 그 외에 유,엔 미주르 씀, 김요섭 옮김(2001)은 미주르의 『세계의 언어(Языки мира)』(1997)에 실린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에서의 개관

1) 미주르의 『한국어 문법』(2001)의 전체 책 제목은 『한국어 문법(형태론, 조어론). 이론과정.(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이다.

및 언어지리학적 지식, 사회언어학적 지식, 간략한 언어사, 음운학적인 지식, 형태음운론적인 지식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 초록에는 마주르와 그의 업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끈찌비치 엠크·김영일 옮김(2000)에서 마주르의 「한국어 단어의 형태론적 분석에 관한 기본 문제」와 「한국어 어형변화의 일반적 특징」을 번역한 글이 있다.

마주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의 레마르추크(B.B. Ремарчук)가 자세하게 기록하였다.²⁾ 또한 마주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출판된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에서는 그의 아내인 이바노브나(B.И. Ивановна)와 콘체비치(Л.Р. Концевич)가 작성한 「유.엔. 마주르의 이력서」가 실려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은 레마르추크(2001, 2004), 이바노브나·콘체비치(2001), 콘체비치(2001)를 참고로 한다.³⁾

마주르의 품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1954년에 출판된 『로조사전』의 부록인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960년에 출판된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 2001년에 출판된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⁴⁾ 「문법 개요」는 『로조사전』의 부록인데, 이 사전은 1954년 모스크바 국립 외국어 민족어 사전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데.엠. 우사토프(Д.М. Усатов), 유.엔. 마주르, 브.엠. 모즈데이코프(B.M. Моздъков) 세 사람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이다. 비록 사전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편찬하였지만 부록인 「문법 개요」는 마주르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록은 총 112

2) 브.브. 레마르추크(1942~2019)는 러시아의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филолог-востоковед)이다. 1965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при МГУ)를 졸업하고, 1974년에는 「베트남 문어 체계에서의 중심과 주변의 일부 문제(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центра и периферии в системе вьетнам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라는 주제로 언어학 박사 학위(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를 취득하였다.

3) 이바노브나·콘체비치(2001)는 마주르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고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2001)의 12~16쪽에 수록되어 있다.

4) 이하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를 「문법 개요」라고 하고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을 「한국어 문법」이라고 하겠다.

면으로 음성학, 형태론, 통사론의 세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14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는 1960년 모스크바 동방문학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이며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서 기획한 총서인 『외국 동양 및 아프리카의 언어(Язы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중의 한 권이다. 이 책은 총 119면이고 서문,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관계, 한국어와 방언, 한국 문자의 역사, 음성학과 서체, 어휘와 단어형성, 형태론, 통사론, 한국어 연구의 역사,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문법』은 마주르가 세상을 떠난 뒤, 콘체비치(Л.Р. Концевич)가 편집하고 2001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출판된 현대 한국어의 이론 문법서이다. 이 책은 마주르가 70~80년대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의 한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총 330면이고 품사와 보조어, 형태론, 형태형성(формообразование), 단어형성, 부록으로 구성되었다.⁵⁾ 이 세 업적은 모두 러시아어로 쓰여진 한국어 문법서들이며 『문법 개요』에서만 예를 한글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두 권의 책에서는 예를 키릴 문자로 전사하여 제시하였다.

2.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

유리 니콜라예비치 마주르(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는 1924년 11월 24일, 중국 동부 철도(Китайско-Восточн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КВЖД) 부허두 역(Бухэду, 博克圖) 근처에서⁶⁾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이 곳에서 보냈

5) 형태형성은 넓은 개념으로는 명사의 격 변화, 형용사와 형동사 및 수사와 대명사의 성, 수, 격 변화, 동사의 성, 수, 인칭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 변화와, 명사의 성, 수의 형태형성,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및 최상급의 형성, 형용사 단형, 동사의 시제, 법, 태의 형성, 형동사, 부동사, 미정형의 형성 등을 의미하는 형태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남신·박수빈, 『러시아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17, 246쪽.

6) 중국의 킨간 유역(Greater Khingan, 大興安嶺, 다싱안링)에서 하일라얼(Hailar)과 치치하얼(Qiqihar) 사이의 철도를 따라 500km 떨어진 곳에 부허두 역(博克圖)이 있다. 동부철도의 마지막 역인 만저우리 역(滿洲里)까지 가면 러시아 국경이 보인다.

다. 8살인 1932년에 모스크바로 이주하였고 1년 뒤에 스타린그라드(지금의 볼고그라드)로 이사하였으며, 1942년에 그곳에서 제8 학교(школа №8 им. КИМ)를 졸업하여 중등교육을 받았다. 1942년 7월, 애국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우리는 붉은 군대에 징집되어 항공기 정비사로 아스트라한 군사학교(Астраханская военная школа)에 보내졌다.⁷⁾ 1943년 5월, 마주르는 칼리닌 전선 제568 항공 돌격 연대 소속으로 실습을 위해 긴급 파견된다. 그 당시 그는 연합산업학교(Всесоюзн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институт)에서 3학기 동안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하였다. 또 1944년 10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제27 예비 항공 연대로 편입되어 수석 항공 정비사로 복무하였다.⁸⁾

마주르는 1945년 10월에 전역함으로써 조종사가 되려는 어린 시절의 꿈과 작별하고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В) 극동학부(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한국학과(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전공하였다. 5년 후인 195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한국 국가 전문가(Страновед по Корее) 자격도 취득하였다.⁹⁾

아직 학생이던 마주르는 194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쳤다. 1951~1952년에는 소련 외무부의 고등 외교 학교(Высша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7) 이바노브나·콘체비치(2001)에서는 1942년 6월에 아스트라한 군사학교에 보내졌다고 되어 있다. Ивановна, В.И. & Концевич, Л.Р., "CURRICULUM VITAE Ю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Мазур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 д», 2001. с14.

8) 이바노브나·콘체비치(2001)에서 마주르는 1944년 1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10월까지 항공 정비사로 복무한 다음 모스크바의 연합 통신 산업학교(Всесоюзный заочн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институт)에 입학하여 2학기 동안 공부했다고 한다. Ивановна, В.И. & Концевич, Л.Р., 위의 책, с14.

9) 마주르는 1951년에 빅토리나 이바노브나 이바노바(Викторина Ивановна Иванова)와 결혼했다. 빅토리나 이바노브나 이바노바는 마주르보다 한 학년 아래에 있었고 평생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극동 문학부에서 일했다.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문학의 신소설(новая проза)과 현대 문학의 전문가로서 최고의 문학 연구자 중 한 명이다. 또한 빅토리나 이바노브나는 한국의 위대한 산문 작가인 이기영(Ли Гиё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Ремарчук, В.В.,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1924~1998)",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2004, с79.

школа МИД СССР)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했다. 1953년에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에서 『한국어의 격과 후치사(Падежи и послелого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라는 주제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 후 그는 같은 연구소에서 강사로 임용되었다. 1954년 9월 1일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해산 당시,¹⁰⁾ 마주르는 제1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Первый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로 옮겨졌는바 일반 및 러시아어 언어학과(кафедра обще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знания)에서 강사로 한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교수법을 연구하였다. 1956년 9월부터 마주르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에 시간제 강사 및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평생 동안 이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한국어와 관련해서 100편이 넘는 업적을 남겼다.¹¹⁾

마주르는 반세기 동안 동료들과 함께 『로조사전』(1951, 1952, 1954, 1988), 『로조 소사전』(1958, 1959), 『로조 대사전』(1962), 『로조, 조로 사전』(1987), 『조로 소사전』(1962), 『조로사전』(1994) 등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사전 편찬에 공헌을 하였다. 사전 편찬 외에 마주르는 『한국어의 격과 후치사(Падежи и послелого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1953),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1960), 『현대 한국어의 단어형성과 구(Форма слова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1960), 『한국어의 단어구조(Структура слова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1961), 『한국어의 어형변화(Склонение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1962),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2001) 등 한국어의 단어형성, 단어구조, 문법과 관련된 논저들을 남긴 학자이다. 마주르는 한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에도 관심을 가졌었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1학년 인도네시아어 교과서(Учебник

10) 레마르추크(2004)에서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가 1953년 9월에 해산되었다고 되어 있다. Ремарчук, В.В., 앞의 논문, 79쪽.

11) Ивановна, В.И. & Концевич, Л.Р., 앞의 책, c15-16.

индонези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1-го года обучения)』(1985)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세계의 언어』(1997)에 실린 「한국어」가 그의 마지막 업적이 된다.

1958년 1월~1959년 2월, 소련과학아카데미와 북한사회과학원 사이에 학술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마주르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북한사회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홍기문, 김수경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들었고 이는 그의 학술적 수준과 교수법의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편 소련과 한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1990년 9월~1991년 6월 그는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 연세대학교에 초청되어 러시아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마주르는 1998년 10월 3일에 급성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러시아 최고의 한국어학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3.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

품사(word class)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class)’를 말한다.¹²⁾ 한국어의 품사 분류는 서양 전통문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한국인 한국어학자마다 품사를 다르게 분류하고 그 기준도 다르다. 한국어는 교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품사를 기능과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9품사로 나눈다.

그러면 러시아인 한국어학자는 한국어의 품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우선,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소련의 한국어학자인 홀로도비치(А.А. Холодович)의 품사 체계를 살펴보자. 홀로도비치는 『한국어 문법 개요(Очерки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1954)에서 한국

12)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45쪽.

어의 단어를 품사(части речи)와 소사류(частицы речи)로 분류하였는데 품사에는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가 포함되고 소사류에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가¹³⁾ 포함되어 총 9개의 품사를 제시한다.¹⁴⁾ 홀로도비치의 품사 체계에는 한국어 문법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생소한 개념의 소사가 설정되어 있고 그 소사 목록에는 러시아어에서 소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모두가 포함되었다.¹⁵⁾

홀로도비치 이후 러시아인 한국어학자인 마주르는 또 어떤 기준에 따라 한국어 품사를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본고는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에 앞서,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한다. 마주르는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굴절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즉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한국어의 단어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품사와 보조어로 나누었다. 품사는 조사를 제외한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품사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조어는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보조사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후치사, 접속사, 의존명사 등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3장에서는 마주르의 독특한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품사와 보조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품사

마주르는 『문법 개요』에서 한국어의 품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양상어, 묘사어, 후치사, 접속사, 소사, 감탄사 12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품사를 명사류, 동사류, 부사, 보조어, 감탄사 5

13) 러시아어 문법에서 소사(частица, 小詞)는 개별 단어나 문장 전체에 다양한 양상의 뉘앙스를 더해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어이다. 표상용, 『현대 러시아어학 개론』, 신이사, 2019, 103쪽.

14) 김태우, 「A.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74쪽.

15) 김태우, 위의 논문, 286쪽.

가지 무리로 분류하였는데 명사류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류에는 동사와 형용사, 부사에는 본래 부사, 양상어, 묘사어가 포함된다. 또 보조어에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 외에 『문법 개요』의 보조어에는 분류되지 않은 의존명사, 보조용언이 첨가되어 12품사로 설정되었다. 마주르는 『한국어 문법』에 와서 한국어의 단어를 품사와 보조어와 같이 따로 분류하였다.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묘사어, 감탄사와 같이 9품사로 분류하였고 보조어는 후치사, 접속사,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연결사, 소사와 같이 8가지로 분류하였다.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에서의 품사와 보조어 분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와 보조어 분류

품사(части речи)	『문법 개요』 (1954)	『한국어』 (1960)	『한국어 문법』 (2001)
명사(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	○	○
대명사(местоимение)	○	○	○
수사(числительное)	○	○	○
동사(глагол)	○	○	○
형용사(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	○
관형사(атрибутив)	×	×	○
부사(наречие)	○	○ 부사	○
양상어(модальное слово)	○		×
묘사어(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слово)	○		○
감탄사(междометие)	○	○	○
	9	7	9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문법 개요』 (1954)	『한국어』 (1960)	『한국어 문법』 (2001)
후치사(послелог)	○	○	○
접속사(союз)	○	○	○
소사(частица)	○	○	○

의존명사(служебное имя)	×	○	○
분류사(счетное слово)	×	×	○
보조동사(служебный глагол)	×	○	○
보조형용사(служеб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보조용언	○
연결사(связка)	×	×	○
	3	5	8

[표1]에서 보듯이 마주르의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에서는 공통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묘사어, 감탄사와 같은 8가지 품사가 설정되어 있다. 『문법 개요』, 『한국어』에서는 관형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에서는 『문법 개요』에서의 부사, 양상어, 묘사어를 하나의 품사인 부사로 묶었다. 『한국어 문법』에 와서 양상어라는 품사가 사라지고 관형사가 최초로 등장한다. 보조어에는 공통적으로 후치사, 접속사, 소사가 설정되었다가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용언, 연결사와 같은 보조어의 분류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마주르가 한국어의 단어를 품사와 보조어로 분류하는 것을 보면 마주르도 홀로도비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문법을 기반으로 한국어를 바라본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비노그라도프(B.B. Виноградов)의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1947)에서는 단어를 독립어, 양상어, 보조어, 감탄사로 나누었다.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동사, 부사, 상태범주를 독립어에 포함시켰고 전치사, 접속사, 조사, 계사를 보조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비노그라도프(1947)의 품사관이 러시아어 품사론의 근간이 되었는데 그 후 러시아 언어학자들에 의해 품사라는 용어는 치층 보조어, 양상어, 간투사 등 모든 어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¹⁶⁾ 현대 러시아어에는 10개의 품사가 있다. 우선 자립어, 보조어, 간투사로 나누어지고, 자립어는 변화사와 불변화사로, 변화사에는 곡용을 하는

16) 임홍수,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대조』, 『국제문화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08, 274쪽.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와 활용을 하는 동사가 있다. 불변화사에는 부사가 있다. 보조어에는 전치사, 접속사, 소사가 있다.¹⁷⁾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에 적용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품사 분류 가운데 현재 한국어의 학교문법과 차별화된 특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와는 크게 다른 점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1) 동사와 형용사

마주르는 동사와 형용사를 별개의 품사로 설정하였고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굴절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개요』,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다루기 전에 동사류(предикативы)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동사류(동사, 동사성 형용사, 연결사/연결동사)의 어간 유형, 서법, 시제, 형동사, 부동사, 부정사 등과 같은 문법범주들을 다루고 있다. 『한국어 문법』에 와서 용언의 문법범주를 형태형성(формообразование)이라는 장에서 다루게 된다.¹⁸⁾ 용언의 문법범주 중에서 형동사(причастие)는 용언의 관형사형(가는/간/갈/가던 사람)에 해당되고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는 용언의 부사형(먹고, 자라며, 부르러, 밤새도록)에 해당되며 부정사(инфинитив)는 ‘일함, 일하기’와 같은 용언의 명사형과 ‘일하지 않다’처럼 ‘-지’와 결합한 ‘일하지’를 가리킨다.¹⁹⁾

러시아어에서 부정사는 한국어의 ‘하다, 만들다’와 같은 용언의 기본형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주르는 용언의 명사형에 대해 부정사를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부정사는 제1부정사 ‘-ㅁ/-음’, 제2부정사 ‘-기’, 제3부정사 ‘-지’와

17) 표상용, 앞의 책, 95~96쪽.

18) 한국어 용언의 서법, 시제 등 문법 현상에 대한 마주르의 연구는 후후의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19) 조남신·박수빈(2017)에서는 부정사를 미정형이라고 한다. 조남신·박수빈, 앞의 책, 289쪽.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분류는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어 문법』(1949)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⁰⁾ 이 제3부정사, 즉 불완전 부정사(недостаточный инфинитив) ‘-지’는 용언의 부정 형태와 금지 형태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한다.²¹⁾ ‘-지’가 용언의 명사형으로 분류된 것도 특이하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부정사라는 용어 대신 ‘-ㅁ/-음’을 제 I 명사형(форма субстантива I), ‘-기’를 제 II 명사형(форма субстантива II)으로 명명하여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²²⁾ 한편, 『한국어』에서 제3부정사로 설정되었던 ‘-지’는 명사형에서 제외되고 부정형 전치 형태(форма преднегатива, pre-negative form)로 명명하고 ‘-지’에 대해서는 ‘-는, -도, -조차, -나, -만’과 같은 접어-변형소와 결합하여 쓰이는 용법과 주격의 ‘-가’, 대격의 ‘-를’과 결합하여 쓰이는 용법을 언급하였다.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미주르의 세 업적 중 『한국어 문법』에서만 ‘이, 그, 저’ 계열의 동사와 형용사를 대응 동사(местоименные глаголы)와 대응 형용사(местоименн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로 나누었다.²³⁾ 대응 동사에는 지시 대응 동사(указа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глаголы)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이리다, 그리다, 저리다(사용이 흔하지 않음)’, 의문 대응 동사(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глаголы) ‘어쩌다, 어떡하다’가 포함되고 대응 형용사에는 지시 대응 형용사(указа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20) Мазур, Ю.Н., “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ловарей, 1954, с1005. Мазур, Ю.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ый литературы, 1960, с75.

21) 홀로도비치(1954)에서도 부정사(инфинитив)를 제1부정사 ‘ㅁ’, 제2부정사 ‘기’, 제3 혹은 불완전 부정사 ‘지’로 나누고 있다. Холодович, А.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1954, с178-180.

22) 『한국어 문법』 151쪽에 있는 각주에 따르면 미주르는 ‘-ㅁ’을 명사형(субстантив) 어미, ‘-기’를 부정사형 어미로 설정한 바 있다. 이후의 모든 업적에서는 제 I 명사형(форма субстантива I), 제 II 명사형(форма субстантива II)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홀로도비치(1954)는 반대로 제1부정사, 제2부정사로 나누었다고 한다. Мазур, Ю.Н.,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 д», 2001, с151. Холодович, А.А., 위의 책, с178-180.

23)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이, 그, 저’ 계열의 관형사와 부사의 분류에도 대응 관형사와 대응 부사가 있다.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요렇다, 고렇다, 조렇다’, 의문-한정 대용 형용사(вопросительно-неопределен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어떻다, 아무렇다’가 포함된다.²⁴⁾

(2) 관형사

한국어의 관형사(атрибутивы)에 대해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최초로 등장한다.²⁵⁾ 마주르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대상의 특징을 한정하여 표현하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관형사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여 개념을 설명한다.²⁶⁾ 관형사는 접두사와 달리 ‘온 나라, 모든 사람’처럼 띄어 쓴다는 특징, ‘온 조국 강토, 모든 선량한 사람’처럼 관형사와 피수식어 사이에 명사나 형용사를 삽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여 대용 관형사(местоименные атрибутивы)와 수관형사(нумеральные атрибутивы)로 분류하였다. 대용 관형사는 다시 지시 대용 관형사(указа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атрибутивы)와 의문 대용 관형사(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атрибутивы)로 나누어진다.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에서 제시된 관형사의 분류와 목록은 아래와 같다.

24) 대용 동사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와 대용 형용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에서 축약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용 동사 ‘이리다, 그리다, 저리다’는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에서 축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Мазур, Ю.Н., 위의 책, 2001, c66-69.). 홍택규(2004)에서는 마주르는 형용사를 동사와는 다른 독립적인 품사로 분류하지만, 그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을 때가 종종 보인다고 한다. 동사 ‘이리하다/그리하다/저리하다’에서 축약된 ‘이리다/그리다/저리다’ 형태를 형용사 ‘이러하다/그리하다/저러하다’에서 축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홍택규, 『Ю.Н. Мазур,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한국어 문법. 이론과정), Москва: Муравей -Гай д, 2001, 330Рр., 『형태론』 6(1), 형태론, 2004, 197쪽).

25) 『한국어 문법』, 70쪽에 있는 각주에 따르면 마주르는 1973년 평양에서 출판된 『문화어 학습 참고서』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Мазур, Ю.Н., 앞의 책, 2001, c70.

26) 최지영,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 사용 양상 연구 - 홀로도비치와 마주르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0,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년, 399쪽.

[표2] 『한국어 문법』에서의 관형사 분류와 목록

관형사 분류			목록			
1	대용 관형사	지시 대용 관형사	일반 변체	이	지소(指小)-경멸 변체	요
				그		고
				저		조
		의문 대용 관형사	무슨, 어느, 웬, 어느			
2	수관형사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닷, 엇, 스무, 두세/두어, 두서너/두어서너, 서너, 한두, 십여, 백여, 칫			

[표2]에서 보듯이 마주르가 제시한 관형사의 예는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수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의 학교문법에서의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의미 기능에 따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마주르의 관형사 분류에는 성상관형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예로 든 ‘은’과 ‘모든’은 성상관형사에 해당되고 대용 관형사는 한국어 학교문법의 지시관형사에 해당되며 수관형사는 한국어 학교문법의 수관형사와 일치한다. 한편, 마주르의 관형사에서는 한자어 관형사가 언급되지 않았다.

(3) 부사, 양상어, 묘사어

마주르의 품사 분류 중에 양상어(модальные слова)와 묘사어(изобразительные слова)가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상어는 양태부사에 해당되고 묘사어는 의성의태어에 해당된다. 마주르가 설정한 양상어와 묘사어는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부사로 설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표1]에서 보듯이 마주르의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에는 모두 부사가 설정되어 있다. 양상어는 『문법 개요』에서는 하나의 품사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국어』에 와서 부사의 하위분류로 설정된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품사에서 사라진다. 묘사어는 『문법 개요』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하나의 품사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부사의 하위분류로 설정되었다.

우선, 부사를 살펴보자. 『문법 개요』와 『한국어』에서는 부사를 비파생부사와 파생부사로 나누었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비파생부사와 파생부사를 본래 부사(собственно наречия)라고 명명하여 설명한다.

『한국어 문법』에서 부사의 하위분류로 대응 부사(местоименные наречия)를 설정한다. 대응 부사는 다시 지시 대응 부사(указа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наречия)와 의문 대응 부사(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ные наречия)로 나누어진다. 지시 대응 부사에는 ‘이, 그, 저’ 계열의 ‘이리, 그리, 저리/요리, 고리, 조리; 이다지, 그다지, 저다지/요다지, 고다지, 조다지; 이만, 그만, 저만/요만, 고만, 조만; 이대로, 그대로, 저대로/요대로, 고대로, 조대로’가 있고 의문 대응 부사에는 ‘왜, 어찌’가 있다.

『문법 개요』와 『한국어』에서 양상어를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실성, 의심 등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아마, 반드시, 과연, 물론, 결코, 사실, 어서, 제발, 응당, 가령, 설마’와 같은 양태부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예로 들고 있다. 러시아어의 양상어도 마주르가 설명하는 양상어와 마찬가지로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마주르가 한국어 품사에 양상어를 설정한 것은 러시아어 문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비노그라도프(194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묘사어란 말 이외의 소리를 모방하거나 행동 양식, 구성, 대상, 현상을 모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문법 개요』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묘사어로 명명하여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였지만 『한국어』에서는 부사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문법 개요』에서는 묘사어를 의성어(звукоподражательные слова)와 의태어(образоподражательные слова) 두 가지로 나누어 ‘멍멍, 야옹야옹, 뽀뽀, 딸랑딸랑’, ‘꽁꽁, 살살, 비틀비틀’ 등의 예를 들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묘사어를 의성어, 의태어(образные слова), 소리와 움직임/모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의성의태어(звукообразные слова)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의성어의 예로는 ‘중얼중얼, 어흥어흥, 짹짹, 칙칙, 뽕뽕’을 들고 있고, 의태어의 예로는 ‘슬금슬금, 무럭무럭, 출렁출렁’을 들고 있으며 의성의태어의 예로는 ‘철철’을 들고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묘사어를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образоподражательные слова)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예는 들지 않았다.

2) 보조어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는 자립성이 없는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법 개요』에서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 『한국어』에서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 의존명사, 보조용언, 『한국어 문법』에서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연결사로 나누었다.

(1) 후치사

마주르의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에서는 기능과 의미 면에서 유럽어의 전치사, 특히 러시아어의 전치사(предлог)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후치사(послелог)가 설정되어 있다.²⁷⁾ 마주르의 세 업적에서 제시된 한국어의 후치사 분류와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3] 마주르의 한국어 후치사 분류와 목록

『문법 개요』(1954)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2001)		
1	후치접사	까지, 부터, 한테, 더러	×		
2	명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앞, 뒤, 가운데, 안, 속, 전(前), 후(後), 중(中), 간, 이전, 이후, 이래	명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앞, 뒤, 위, 아래, 밑, 안, 속, 밖, 가운데 전(前), 후(後), 상(上), 하(下), 내(內), 외(外), 중(中), 간(間)	
	동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대하여(대한), 위하여(위한), 통하여(통한), 말미암아	동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대격 ‘-을/를’	위하여(위한), 통하여(통한), 향하여(향한), 걸쳐(걸친)
				여격 ‘-에’	대하여(대한), 관하여(관한), 의하여(위한), 제하여(제한), 있어서
				도구격 ‘-로’	인하여(인한), 말미암아, 보아
			공동격 ‘-와/과’	더불어, 아울러	

27) 러시아어 문법에서의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사격 앞에 위치하여 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다른 단어와의 통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어이다. 표상용, 앞의 책, 101쪽.

[표3]에서 보듯이, 마주르의 후치사는 공통적으로 명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앞, 뒤, 가운데, 전(前), 후(後)’ 등과 동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위하여(위한), 대하여(대한), 인하여(인한)’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²⁸⁾ 『문법 개요』에서만 ‘까지, 부터, 한테, 더러’와 같은 후치접사(послелюги-аффиксы)가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한테, -더러, -다, -다가, -부터, -까지’ 등 일부 접사를 후치사로 보지 않았다.²⁹⁾

한편, 러시아어의 전치사에는 ‘до(까지), из/от/с(부터, 에서), в(에, 안, 내), на(위), под(밑으로, 아래로), через(후, -을 통하여), между(가운데, 중), вне(밖), возле(옆), о/про(-에 대하여), посредством(-에 의해서), для(위하여)’ 등이 있는데 마주르가 제시한 후치사 목록은 러시아어의 전치사와 대응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후치사의 설정은 마주르뿐만 아니라 Ramstedt(1939), 홀로도비치(1954)에서도 볼 수 있다.³⁰⁾

(2) 접속사

마주르의 『문법 개요』, 『한국어』, 『한국어 문법』에서는 ‘및, 혹은’,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부사들을 보조어의 일종으로 보아 접속사(союз)에 포함시켰다.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접속사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 문장성분을 이어주는 병립 접속사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나누어진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4] 마주르의 한국어 접속사 분류와 목록

분류	『문법 개요』(1954)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2001)
문장성분을 이어주는 병립 접속사	와/과, 및, 하고, 랑/이랑, 내지(乃至), 겸(兼)	및, 혹은

28) 명사에서 형성된 후치사 중에 고유어 후치사는 항상 공간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고 한자어 후치사는 시간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29) 『한국어』에서는 ‘-한테, -더러, -다’ 등을 접사라고 부르고 있다.

30) 김태우, 앞의 논문, 286쪽.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연속), 그런데, 그런즉(설명),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인과), 그러면(조건), 그 러나, 그래도(반의), 하나, 하지만
--------------------	----------------------------------	---

[표4]에서 보듯이, 미주르의 접속사 목록은 『문법 개요』에서 제시된 ‘와/과, 하고, 랑/이랑, 내지, 껌’을 제외하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의 학교문법에서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들을 접속사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 부사의 하위분류인 접속부사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등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부사와는 별개의 품사로 설정한다. 미주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표4]에서 제시된 목록들을 접속사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사

홀로도비치(1954)와 마찬가지로 미주르의 보조어 분류 중에도 소사(частица)라는 하위분류가 있다. 『문법 개요』에서는 강조(выделительная), 첨가(присоединительная), 한정(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대비(частица сопоставления),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уточнительная), 선택(разделительная), 반의(противительная), 비교(сравнительная), 기타 등 다양한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각각 비교(сравнительная), 부정(отрицательная), 형동사 후치 소사(послепричастные частицы)와 부정, 형동사 후치 소사와 같이 나누어졌다.³¹⁾ 미주르의 한국어 소사 분류와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문법 개요』에서 제시된 ‘-은/는, -도, -조차, -까지, -만, -야, -리야, -야말로, -나, -든지, -커녕, -처럼, -마냥’ 등 다양한 부류의 소사들은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소사의 하위분류에서 제외되는데 각각 명사의 문법범주인 특수표시범주(категория уточнения)와 격 형태의 변형에서 다루고 있다.

[표5] 마주르의 한국어 소사 분류와 목록

『문법 개요』(1954)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2001)
강조	는/은	×		
첨가	도(방언형: 두), 조차, 마다, 서건			
한정	만			
대비	보다(방언형: 보담)	비교	보다	×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	께서, 깨옵서, 야/이야(방언형: 사/이사), 야말로/이야말로, 씹/식	×		
선택	나/이나, 든지/이든지			
반의	커녕(방언형: 새려, 새나, 케타)			
비교	처럼, 같이, 마냥, 만(보조어 '하다' 앞에 쓰임)			
기타	따름, 뵈, 뵈더러, 대로, 만큼(만치, 만침), 듯, 둥, 번 ³²⁾ , 만(보조어 '하다, 듯 하다'와 함께 쓰임), 아니, 못	부정	아니, 못	아니(안), 못
		형동사 후치 소사	따름, 뵈, 뵈더러, 듯, 만, 만큼, 겹, 대로, 둥, 번, 지, 채로	따름, 뵈, 듯, 만, 만큼, 겹, 대로, 둥, 번, 지, 채로

[표5]에서 보듯이 마주르의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의 소사 분류와 목록은 『문법 개요』에서 제시된 소사 분류와 목록보다는 간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면도 없지 않다.³³⁾ 예를 들면 마주르가 제시한 소사 목록은 현재 한국어의 학교문법에서의 주격 조사 ‘께서’, 접미사 ‘씩’, 보조사 ‘는/은, 마다, 만, 도,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 나/이나, 든지/이든지, 커녕’, 부사격 조사 ‘처럼, 같이, 마냥,³⁴⁾ 부정부사 ‘안, 못’, 의존명사 ‘따름, 뵈, 듯, 만, 만큼, 겹, 대로, 채로’ 등 대부분 자립성이 없는 것들(격조사, 보조사, 부정부사, 의존명사)이 소사에 포함되어 있어 소사의 분류 기준이 매우 모호하

32) ‘번’의 예로 ‘넘어질번하다’를 들고 있다.

33) 홍택규(2004), 최지영(2016-)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홍택규, 앞의 논문, 199쪽. 최지영, 앞의 논문, 394쪽.

34) ‘처럼, 같이, 마냥은 이희자·이종희(2014)를 따라 부사격조사라고 하였다. 이희자·이종희,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14.

다고 할 수 있다. 또 『문법 개요』에서 접속사로 제시되었던 ‘겸(兼)’은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소사로 제시된다.

한편, 러시아어 문법에서 소사는 개별 단어나 문장 전체에 다양한 양상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어로,³⁵⁾ 조어 소사 ‘пусть(하자), бы(만약)’, 부정 소사 ‘не, ни(아니)’, 의문 소사 ‘ли(ль)(...런지), не ... ли(아닐지), неужели(과연 그런가), никак(여하튼)’, 시간의 경과 혹은 결과성을 나타내는 소사 ‘было(있었다), бывало(있곤 했다), только что(금방), чуть(조금)’, 양상 소사 ‘вот(바로), же(도), только(만, 뿐), однако(한편)’, 확신 또는 거부 반응 소사 ‘хорошо(좋다), ну(글쎄), никак нет(그렇지 않다)’ 등이 포함된다.³⁶⁾ 미주르의 소사에는 러시아어 문법에서의 소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 개요』에서 ‘만, 뿐, 따름, 다만, 뿐더러, 라야(이)나, (이)든지, 도, 조차, 까지, 야말로, 은/는, 아니, 못, 처럼, 같이, 만큼, 커녕’을 소사로 제시한 것을 보면, 미주르의 『문법 개요』에서의 소사 목록이 홀로도비치의 목록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4) 의존명사, 분류사

의존명사(служебные имена)와 분류사(счетные слова/нумеративы; 단위성 명사)는 한국어 문법에서 명사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미주르의 의존명사는 『문법 개요』에서는 명사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였지만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조어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였다. 분류사는 『문법 개요』와 『한국어』에서는 수사의 하위분류로 보지 않았지만 수사와 함께 다루고 있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조어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였다. 미주르의 한국어 의존명사와 분류사 목록은 아래와 같다.

35) 표상용, 앞의 책, 103쪽.

36) 최지영, 앞의 논문, 393-394쪽.

[표6] 마주르의 한국어 의존명사와 분류사 목록

분류	『문법 개요』(1954)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2001)
의존명사	이, 것, 바, 줄, 데, 수, 리, 씨, 터, 차, 체(척), 적(제), 지, 양, 채, 자, 한, 고, 시	것, 데, 리, 바, 분, 수, 양, 이, 자, 적, 제, 줄, 척, 체, 차, 터, 해	것, 데, 리, 바, 분, 수, 양, 이, 자, 적, 제, 줄, 척, 체, 차, 터, 해
분류사	명(名), 마리, 대, 척, 문(門), 권(券), 장, 커리(컬레), 벌, 호(戶), 개소(個所), 사람, 그루, 알, 자루, 길로, 툰, 말, 섬, 가마니, 병	개, 마리, 자루, 가락, 명, 문, 컬레	권, 마리, 명, 문, 방, 부, 살, 정, 척, 추, 그램, 리터, 마일, 툰

(5) 보조용언, 연결사

보조용언(служебные предикативы)은 일반적인 동사와 형용사와는 달리, 어휘적 의미가 명시적이지 않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말다, 버리다, 내다’와 같은 보조용언은 『문법 개요』에서는 보조동사(служебный глагол)라고 명명하여 상 범주에서 다루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조어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였다. 마주르의 세 업적에서의 보조용언 목록은 거의 같다. 『한국어 문법』의 보조동사에는 ‘보다, 말다, 버리다, 내다, 놓다, 대다, 가다, 오다’, 보조형용사(служеб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에는 ‘하다, 싫다, 보다’가 있다.

한편, 마주르는 한국어의 ‘이다’와 ‘아니다’를 연결사(связка)라고 부른다. 『문법 개요』와 『한국어』에서는 ‘이다’, ‘아니다’를 연결사로 보조어의 하위분류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동사류의 문법범주에서 연결사 또는 연결동사(связочный глагол)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다’, ‘아니다’를 보조용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이다’, ‘아니다’를 보조어의 일종으로 독립시켰다. ‘이다’, ‘아니다’는 각각 러시아어의 ‘быть, являться’ 동사와 그의 부정형인 ‘не быть, не являться’로 번역되어 있다. 비노그라도프(1947)의 연결사를 고려하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 또한 『한국어』의 참고문헌에는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이 있지만 ‘이다’를 잠음씨(지정사)로 설정한 최현배(1937)에 대한 언급은 없다.

4. 결론

지금까지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 그리고 그의 한국어 품사 체계를 살펴 보았다.

마주르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극동학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학부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에서 『한국어의 격과 후치사(Падежи и послелог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라는 주제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 후, 마주르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제1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를 거쳐 1956년 9월부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현재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다. 마주르는 『로조 사전』, 『로조 소사전』, 『로조 조로 사전』, 『조로 사전』, 『로조 대사전』 등의 사전을 편찬하여 사전 편찬에 큰 기여를 하였고, 또 러시아어로 된 연구 논문, 교과서, 저서 등 100편이 넘는 업적을 남겨 오늘날 러시아 최고의 한국어학자 중의 한 명으로 평가된다.

마주르는 러시아인 한국어학자로서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첫째, 러시아어 문법에서 단어를 자립어와 보조어로 나누는 것처럼 한국어의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있는 것들은 품사에 포함시키고 후치사, 접속사, 조사, 의존명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없는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것들은 보조어에 포함시켰다. 둘째, 러시아어 문법에는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양상어라는 품사가 있는데 마주르는 이를 한국어에 적용시켜 한국어의 양태부사를 양상어로 설정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러시아어 전치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후치사를 설정하고 그 목록도 러시아어의 전치사와 대응된다. 넷째, 마주르의 한국어 조사에는 러시아어 문법에서의 조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이다’, ‘아니다’를 연결사로 설정하여 러시아어의 연결사인 ‘быть, являться’와 그의 부정형인 ‘не быть, не являться’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주르는 북한사회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홍기문, 김수경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강의를 들었고 『조선어 문법』(1949), 『문화어 학습 참고서』(1973)와 같은 평양에서 출판된 저서들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의 한국어 품사 분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관형사의 등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관형사는 『문법 개요』와 『한국어』 같은 초기의 연구에는 없었다가 『한국어 문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은 러시아어 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이해하고 익히기에 최상의 방법이 었을 것이다.

본고는 마주르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시론적인 검토에 불과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한국에서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어학자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였다는 것만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보완하여 좀 더 풍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2018.
- 끈짜비치 역음·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 김태우, 『A.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유.엔. 미주르,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二重言語學會誌』 8, 이중언어학회, 1991.
- _____ 씀, 김요섭 옮김, 『미주르의 “한국어 개설”(번역)』, 『한국말글학』 제18집, 한국말글학회, 2001.
- 이희자·이중희,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14.
- 임홍수,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대조』, 『국제문화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08.
- 조남신·박수빈, 『러시아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17.
- 최지영, 『러시아어권 한국어 문법서의 품사 체계와 대역어 양상』, 『노어노문학』 28(1), 한국노어노문학회, 2016 ㄱ.
- _____,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 사용 양상 연구 - 홀로도비치와 미주르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0,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 ㄴ.
- 표상용, 『현대 러시아어학 개론』(2판), 신아사, 2019.
- 홍택규, 『Ю.Н. Мазур,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한국어 문법. 이론과 정.)』, Москва: Муравей-Гайд, 2001, 330Рр.』, 『형태론』 6(1), 형태론, 2004.
- Ивановна, В.И. & Концевич, Л.Р., “CURRICULUM VITAE Ю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Мазур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д», 2001.
- Концевич, Л.Р. “Список основных научных работ Ю.Н. Мазур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д», 2001.
- Мазур, Ю.Н., “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Под редакцией Пак Чон Сика. Третье издание, исправлени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Около 30 000 слов.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ловарей, 1954.
- _____,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ый литературы, 1960. Серия Язы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 _____,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зыки мира: Монгольские языки. 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ие языки. Япон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дрик, 1997.
- _____,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д», 2001.
- Ремарчук, В.В., “От Хингана до Москвы (памяти Мазура Ю.Н.)”, Сборник: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и МГУ. М.:

Муравей, 2001.

_____, “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1924–1998)”,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Том 1. –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та, 2004.

Усатов Д.М., Мазур Ю.Н., Моздыков В.М.(сост.).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Под редакцией Пак Чон Сика. Третье издание, исправлени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Около 30 000 слов.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ловарей, 1954.

Холодович, А.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Yu.N. Mazur's Life and Word Class in Korean

Kalina*

Yuri Nikolaevich Mazur(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 1924~1998)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Korean language scholars of Russia. From 1945 to 1950 he majored in Korean at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 Far Eastern Faculty of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fter he completed the graduate course of the institute in 1953, he worked at Moscow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nd the 1st Moscow State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then he was employed by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of Moscow State University, where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Mazur left over 100 work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brief account of the Mazur's life and his research achievements of Mazur, in the meantime, the classification of word class of Korean will also be analyzed in this paper. This paper is aimed at *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954), *Корейский язык*(1960),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2001) written in Russian by Mazur. As a Russian Korean language scholar, Mazur divided Korean words into word class and syntactic words based on Russian grammar. Those which can be used independently such as nouns, pronouns, numerals, verbs, adjectives were included in the word class, and those showing auxiliary meanings and functions such as postpositions, conjunctions, particles, auxiliary nouns were included in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the syntactic word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Russian grammatical concepts such as setting of modal words, setting of postpositions corresponding to prepositions in Russian, and setting of particles were applied to Korean. He also set the attributive modifiers by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grammar. Although, it is ambiguous that Mazur classified the word class of Korean according to the Russian word class classification system, it must have been the best way for Russian Korean learners to understand and learn Korean.

Key words: Mazur, word class, syntactic words, modal words, postpositions, particles, attributive modifiers